

전시장의 가장 익숙한 규칙인 “손대지 마시오”를 슬쩍 비틀어, 닫힌 프레임 위에 대놓고 “당겨보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손잡이를 달았다. 콜라주 회화를 담은 프레임은 서랍처럼 열리고, 관객이 손잡이를 당기면 그 뒤편에 숨겨진 낙서의 층이 드러난다.

이 작업의 작은 브레이크는 프레임 옆에 놓인 메추리알 등지다. “여기까지만 여시오”라는 건조한 경고문 대신, 나는 그 자리에 작고 연약한 등지를 두었다. 서랍에 힘이 조금 더 실린 순간 메추리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주워 제자리에 올려두곤 했다. 그 순간 관객은 작품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끝에 실린 힘을 작은 알 하나를 통해 문득 알아차리게 된다. 엄숙한 관람 행위는 아주 사소한 민망함을 지나며 잠시 느슨해진다.

숨겨진 낙서의 층은 내가 지내고 있는 소도시 도서관 책상 앞 벽면에 빼곡했던 익명의 흔적들과 겹쳐 있다. 누군가의 이름, 첫사랑, 시험을 앞둔 소망 같은 문장들은 내게 낙서라기보다 잠시 기대어 있다 간 마음의 자국처럼 보였다. 이 기억은 사루비아 전시장의 흰 벽을 보는 순간 불쑥 되살아났다. 전혀 무관한 두 공간의 흰 표면이 겹치는 순간, 기억은 논리적인 이유를 비켜 가며 낯선 표면에 옮겨 붙는다.

처음엔 무관한 종이 조각들을 겹치다 우연히 ‘태양’의 형상이 되었고, 그것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 관객의 손을 타면서 작업은 예측 불가능한 서사를 품게 되었다. 이 작업에서 이동하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다. 종이 조각은 태양이 되고, 전시장 벽은 도서관 낙서를 불러오며, 메추리알을 떨어뜨린 관객의 멧쩍은 손끝도 작품 안에 작은 사건으로 남는다. 누군가 손잡이를 당겨 안쪽을 들여다보고 저마다의 흔적을 묻히는 순간, 이 닫힌 서랍은 작품으로 멈춰 있는 대신 다른 기억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된다.



Installation view, PS Sarubia, Seoul, 2024. © Sunkyoung Ji



Moving Sun, 2024

Materials

acrylic gouache on paper and MDF, spray paint, MDF, wood, rail, print on wallpaper, 92.8 × 111 × 9 cm.

© 2026 Sunkyung Ji.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작가 아카이브의 일부이며, 작가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편집, 전재 및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